

월간 주요 이슈

뉴스로드(2022. 3. 4.)

온라인몰 장신구에서 유해물질 검출 '안전기준 초과'

홍성호 기자

[뉴스로드] 한국소비자원이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귀걸이(15개) 및 목걸이(15개) 등 30개 제품의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니켈, 납, 카드뮴 등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또한 금속 장신구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은 금도금, 은침(핀) 등을 사용했다고 하나 해당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30개 중 6개 제품은 피부와 접촉하는 금속 부위에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의 원인 물질인 니켈의 용출량이 안전기준(0.5 $\mu\text{g}/\text{cm}^2/\text{week}$ 이하)보다 약 2배(1.2 $\mu\text{g}/\text{cm}^2/\text{week}$)에서 37배(18.7 $\mu\text{g}/\text{cm}^2/\text{week}$)까지 초과 검출돼 기준에 부적합했다.

또한, 3개 제품에서 납 함량이 안전기준(0.06 % 미만)보다 약 17배(1.00 %)에서 58배(3.46 %), 5개 제품에서는 카드뮴 함량이 안전기준(0.1 % 미만)의 약 4배(0.4 %)에서 970배(97.0 %)까지 검출되는 등 금속 장신구의 제한물질 기준을 크게 초과해 기준에 부적합했다.

금도금 또는 은침을 사용했다고 표시·광고한 12개 제품 중 7개는 해당 성분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조사대상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사용연령, 제조자명,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아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금속 장신구에 대한 안전 및 표시사항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귀 걸 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목 걸 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